

목숨 건 선거운동 대책마련 시급

도로변 지지 호소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 공직선거법상 규제사항 없어 제재 불가능

6·1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목숨 건 도로변 선거운동'이 여전해 자신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전주의 도로변 몇 곳을 찾아왔다. 아침 일찍부터 이른바 포인트로 지목되는 곳에 후보자들이 쏟아져 나와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출근길 유권자를 향해 신호등에 맞춰 방향을 틀어가며 이른바 풀더(90도) 인사를 하거나 양손을 흔들며 얼굴 알리기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도로 한복판에서 서서 유세를 하거나 인도에 있더라도 간혹 도로에 나서기까지 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수십 명의 선거운동원이 단체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바람에 운동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에 적지 않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기 장소의 경우 각 정당별 선거 운동원들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들러차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다.

운전을 하던 김모 씨(전주시 서신동)는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너무 위험천만한 장면이 목격되고 제 자신도 선거운동 장면을 은연중 쳐다보게 돼 앞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찔한 경험을

얘기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규제사항이 없어 딱히 제재를 할 수 없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후보의 절박한 심리가 이 같은 무리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규제 사항이 없어 안타깝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주의와 협조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인권 보장·증진에 앞장

1기 인권위 간담회 인권 논의 미뤄... 활동 마무리

전주를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협재온 제1기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마지막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 주요사업과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인권관점의 밀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실시했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센터장의 전주시 인권센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로 문을 연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기춘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주시 주요 인권상황 공유 및 논의, 기타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제1기 전주시 인권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참여 위

원들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되돌아보고, 제2기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일터 괴롭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보장 △민선7기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 권고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권관점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시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전주시 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효철 기자



'시원하다'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된 지난 1일 어느 공원의 물웅덩이에서 참새가 목욕을 하고 있다.

SNS 이용해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특정 인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시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익산시선거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 5. 20.까지 C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그들의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의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정보를 자신의 페

이스북에 총 309회에 걸쳐 게시(공유)하였고, 특정인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총 6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워크숍

전주시 인후문화의집(관장 고미숙)은 지난 1일 원주 대송한지마을에서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직원과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전주문화의집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문화의집 사업운영 현황 공유와 진단을 통한 차기년도 사업방향과 새로운 정보 교류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및 문화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전문 기획자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허소정(췌) 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 부설 문화콘텐츠연구소장이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

활동의 다양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생활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의 '2017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진단 그리고 2018 사업방향 제안'과 한성준 한국 리더레이션 센터 대표의 '리더쉽 강화 및 대중과 소통, 공감하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마련돼 전주 문화의집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지공예 체험 및 참여자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문화 활동자로서 유대를 활성화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소통을 통해 문화의집 연합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

추모의 뜻 기리기 위한 조기계양 홍보 게시판·안내방송 활용 시민 참여 유도 시와 구청·주민센터에서 태극기 판매

전주시가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 기리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충일에는 일반적인 국경일과 달리 조기계양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평소 태극기와 함께 계양되는 다른 기도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함께 계양 한다. 가로기와 차량기의 경우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달고 있으나 현충일에는 달지 않

는다.

현충일 당일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현충일 오전 7시부터 자정(24시)까지 조기가 계양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계양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 기리면 된다.

이에 대해, 한동연 전주시 총무과장은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이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국민단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조기계양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태극기 구매편의를 위해 시청과 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 상시 판매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공모사업 12개 과제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산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확충과 관련된 공모 사업에서 최근 12개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당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확정돼 오는 2020년까지 9억원을 지원 받은 데 이어 중소기업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 6개 사업 과제가 선정돼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학교 밖 STEAM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전주형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전통문화확산사업도 선정됐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산학연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

정된 다섬유 방진망의 개발은 한지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섬유 방진망은 한지의 우수한 기능을 이용해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신제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 및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에서는 한지 납골함, 마스크 및 한지와 손톱 글씨를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등이 선정돼 생분해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제시와 해외시장 마케팅으로 글로벌한 한지 제품이 연내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재명 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의 결과는 한지생산업체에 꾸준한 지원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주한지가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한민국전물군경 유족회 호국영령합동추모제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지회장 김용덕)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제13회 대한민국전물군경 호국영령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조준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

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추념사와 헌시낭독, 헌화 및 분향, 국악공연, 제례의식을 통해 호국영령들의 원혼을 달래고, 참석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